

새 세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정치군사적예속화책동

홍영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보적력량이 날로 장성하는데 겁을 먹은 미제는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 나라들에 대한 무력 간섭과 전복, 파괴암해활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제52권 486~487페이지)

새 세기 국제정세에서 주목되는것의 하나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반미자주, 좌익화의 경향이 강화되는것이다. 이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어떻게 하나 그를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정치군사적예속화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무엇보다먼저 미제는 서반구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아가는 쿠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이 나라에 대한 정부전복음모와 군사적파괴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선 미제는 쿠바에 대한 정부전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쿠바정부전복을 노린 미제의 야망은 이전 미국대통령이었던 부쉬2세가 《현 쿠바정권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날》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는 쿠바에 자유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날이 도래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있다.》고 떠벌인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러한 야망밑에 부쉬2세는 2006년 10월 24일에 《자유로운 쿠바를 위한 협조계획》이라는것을 조작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부쉬2세는 쿠바에서의 《평화적민주주의의 운동》을 촉구하는 한편 쿠바국민이 자체로 제도를 《개조》할수 있도록 《자

유》와 《정치적지지》를 제공할것이라고 제쳤다. 이와 같은 쿠바정권교체안의 내용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주는것과 함께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것으로서 때가 되면 쿠바의 잠재적인 반정부세력을 지원할 《국제자유기금》 창설, 쿠바학생들의 미국류학 등이였다.

이 《계획》은 본질에 있어서 쿠바를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에로 되돌려세우기 위한 반동적인 《계획》이였다.

이로부터 감행된 사회주의쿠바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에서 대표적인것의 하나는 《민주주의》, 《인권》의 간판밑에 쿠바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이였다.

새 세기에도 미제는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통해 쿠바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느니, 쿠바가 서반구의 《민주주의》 나라들을 《전복》하려고 한다느니 하면서 쿠바에 대한 비방증상을 일삼으면서 반쿠바감빠니야를 벌렸다.

사회주의쿠바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에서 대표적인것의 다른 하나는 쿠바의 국내와 해외의 반혁명분자들을 사촉하여 정부전복책동을 감행한것이였다.

미제는 오만무례하게도 쿠바의 반혁명분자들과 범죄자들에게 《정치적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떠벌여대면서 그러한 반혁명적악당들이 쿠바내부에서 사회적불안을 조성하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적극 부추겼다.

미제는 2003년 10월에 쿠바의 반혁명분자들로 《자유쿠바후원위원회》라는 반동단체를 조작하고 이 단체에 쿠바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할것을 꾀하였다.

2007년에도 미제는 반쿠바봉쇄조치에

의해 동결되어있던 쿠바민족은행과 쿠바 통신회사의 은행구좌들에서 총 1억 7 000 만US\$를 쿠바의 반혁명분자들에게 그 무슨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한편 미제는 1976년 바베이도즈상공에서 있는 쿠바러객기폭발사건에 직접 가담하였으며 그후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암살을 여러번 시도하고 쿠바의 호텔들에 대한 테로공격을 감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악질적인 국제테로분자 뽀싸다 까릴레스를 적극 비호두둔하면서 쿠바의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적극 부추겼다.

또한 미제는 쿠바에 대한 군사적과피책동도 더욱 로골화하였다.

미제는 쿠바의 신성한 령토인 관따나모를 저들의 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고 침략전쟁준비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반인륜적인 군사적과피책동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미제는 쿠바의 목장과 농장들을 목표로 생물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쿠바주민들을 대상으로 탕구열비루스를 마구 퍼뜨렸다. 미제의 야만적인 생물무기사용으로 쿠바에서는 3 4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540억US\$의 물질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이처럼 미제는 새 세기에도 여전히 쿠바공화국을 정치군사적으로 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제는 쿠바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정부전복, 무력간섭책동을 강화하였다.

우선 미제는 반제반미자주적립장이 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해나가는 베네수엘라를 적대시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정부전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1998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운동》 후보 우고 차베스가 당선되고 반미적인 정권이 출현하자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나라 정부를 전복

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었다.

미제는 베네수엘라정부가 《혁명수출》에 달라붙고 지역의 《민주화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이 나라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대표적실패의 하나가 바로 2002년 4월에 있는 반혁명적정변음모였다. 원유업계에서 《총파업》이 일어난 끝에 페드르 카르모나라는자가 《대통령》으로 자처해나서고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억류되었다. 그러나 차베스를 지지하는 군부세력에 의해 이틀후에 페드르 카르모나는 제거되고 차베스정권이 다시 복귀되었다. 그리하여 반정부세력의 음모는 《2일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정변이 일어나기 약 2개월전인 2002년 2월말 반정부파들은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미국측에 정변계획을 알려주었으며 미국관리들은 정변 1주일전에는 2일동안이나 반대파인물들과 만나 차베스대통령을 축출할데 대해 합의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2002년 4월 25일부는 미국이 이미 2001년에 로조련합 등 정변을 시도한 반정부단체들에 수십만 US\$의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베네수엘라에서의 정변음모에 초기부터 깊숙이 개입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4월정변음모에서 실패한 후인 2002년말 베네수엘라에서는 또다시 차베스대통령을 반대하는 정변미수사건이 있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제의 계속되는 정변음모의 배경에는 원유자원을 확보하고 《반테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기도가 놓여있었다. 미제는 이라크를 반대하는 군사적공격을 준비하면서 저들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후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이것을 미리막기 위해 정변음모를 꾸미었던것이다.

미제는 2002년의 4월정변음모에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조기선거를 조작하여 정권을 교체할 기도를 로골화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현행헌법은 대통령임기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조기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차베스의 경우 임기의 절반이면 2003년 8월이었다. 그러나 미제는 이 기한이 되기도 전인 2002년 12월 백악관대변인을 통해 차베스대통령이 조기선거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실행을 위해 미제는 2003년 베네수엘라 원유업계에서 기만적인 《총과업》을 조작하였다. 먼저 차베스대통령의 원유산업사유화금지조치에 불만을 품은 원유업체들의 고용주들을 사촉하여 직장들을 폐쇄하고 서방원유회사들에 소속된 유조선 선장들로 하여금 원유선적을 거부하게 해놓고는 특권계층이 장악한 언론수단들을 통해 원유업계에서 노동자들이 총과업에 나섰다고 떠들어댔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반대파세력은 2004년에 들어와 조기선거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수집소동을 벌리었다.

미제는 베네수엘라에서의 이 서명수집소동을 전후로 이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점 커가고있는듯이 여론을 내돌려 반대파세력들을 더욱 부추겼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수집한 서명은 헌법상 규정된 240만명선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국 정권을 교체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또 다시 실패하고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책동에 계속 매달리었다.

베네수엘라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자금지출을 늘이면서 그들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이 나라에 사회정치적혼란과 위기를 조성하고있는데서도 표현되었다.

미제는 베네수엘라에서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6년말에 반정부파세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른바 《선거전문가》라고 하는 부쉬2세 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을 그들에게 파견하여 차베스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비밀모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선거때에는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세력인물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친미적인 정권을 내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기도는 파탄되고 반미자주적인 차베스정권은 다시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미제는 차베스대통령에 대한 암살계획과 정부전복음모를 비롯하여 저들의 모략이 거듭 실패하게 되자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베네수엘라에서의 그 무슨 《민주주의》, 《인권》 문제라는것을 걸고들면서 소동을 피웠으며 베네수엘라가 로씨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데 대해 《방위에 필요한 량을 초과》한다느니 하면서 차베스정부가 실시하는 진보적인 정책들에 대해 시비질해나섰다.

또한 미제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아이띠에 대한 군사적간섭, 정부전복책동도 계속 감행하였다.

아이띠에 대한 미제의 무력간섭, 정부전복책동의 주요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친미분자를 대통령자리에 올려앉혀 이 나라에서 저들의 리권을 보호하려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미제는 새 세기에도 아리스피드의 친미정권을 통해 아이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유지강화하려고 획책하였다.

2004년에 들어와 아리스피드의 친미적인 반동정책의 결과로 그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이 고조되고 이 나라의 정세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반정부적소요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무장공격 등 점차 폭동의 성격을 띠면서 전국에 확대되기 시

작하였다. 반대파 무장세력은 2월 7일 이 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고나이브시 등을 장악하였다. 나라가 분열되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으며 대량적인 피난민사태가 발생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미제는 그 책임이 그동안 아리스피드를 지원해온 저들에게 돌아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위험을 느끼었다. 더우기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사태가 악화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에 라틴아메리카에서까지 복잡한 사태가 지속되어 《반테로전》을 계속하는데 지장을 받게 될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교활한 미제는 이미 취약해진 아리스피드정권을 보다 친미적인 정권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초기에 표방하던 《중재》적인 립장을 버리고 공공연히 무력간섭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2월 19일 반대파세력이 고나이브시에서 이른바 《독립국가》를 선포하고 대통령을 임명하는데 이어 정부를 구성하자 미제는 현지의 미국대사관 《보호》를 구실로 아이띠에 미해병대무력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백악관성명을 통해 아이띠위기의 책임이 대부분 아리스피드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썩우고 사임할것을 요구하였다.

끝내 아리스피드는 미제의 강요에 의해 사임편지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60명의 미해병대에 의해 미군비행기로 중

앙아프리카에 호송되었다.

미제는 이밖에도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 정부전복책동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볼리비아에서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 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정변까지 조작할것을 획책하였으며 에콰도르,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의 《민주주의》의 《침해》에 대해 떠벌이면서 온갖 내정간섭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이처럼 새 세기에도 끊임없이 감행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정치군사적억속화책동을 통하여 미제가 항시적으로 떠벌이는 《평화》와 《완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것은 철두철미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또한 미제야말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립장이 철저한 나라들, 작고 약하며 무방비상태에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침략행위를 일삼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흉악한 원쑤, 세계반동의 원흉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날로 강화되는 이 지역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에 의하여 더욱더 고립배격당하고있으며 종당에는 전면적파산을 면치못하게 될것이다.